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65



▶ 66회 예고

아쇼까왕은 대관식을 앞두고 불면증에 시달린다. 사람들을 살해한 탓이다. 독주에 취한 꾸날라는 왕비 띠쉬아락시따와 하룻밤을 보낸다. 술이 깬 꾸날라는 크게 놀란다. 모욕감을 느낀 띠쉬아락시따가 꾸날라를 탁실라로 보내버린다.

띠쉬아락시따 왕비, 꾸날라에게 반하다

수상 라다굽따는 정궁 회의실에서 경비대장이 아쇼까왕의 칼에 목이 베이는 것을 목격하고는 충격에 빠졌다. 며칠 동안 악몽에 가위눌려서 잠을 자지 못했다. 다음날 새벽. 라다굽따는 강가강 왕실 가트로 나갔다. 제관 시절에는 수시로 나가 기도했지만 수상이 된 이후로는 처음이었다. 강물 위로 안개가 구름자락처럼 떠서 오락가락했다. 새벽기도를 하러 나온 왕실 귀족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라다굽따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오랜 만에 하는 기도였지만 능숙한 자세가 나왔다. 라다굽따는 강가강의 시바신에게 빌었다.

"신이여, 대왕님에게 자비를 내려주소서."

라다굽따는 먼동이 틀 때까지 기도하는 자세를 풀지 않았다. 이윽고 아침 해가 붉은 놀을 뚫고 고개를 내밀었다. 순간 눈부신 햇살 하나가 라다굽따의 이마를 뚫고 지나가는 듯했다. 라다굽따는 그런 번개를 맞은 듯한 느낌에 뒤로 넘어질 뻔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단전에서부터 강한 기운이 정수리로 뻗쳐올라 몸이 뜨거워졌다. 라다굽따는 다시 한 번 기도했다.

"신이여, 대왕님에게 자비를 내려주소서."

라다굽따는 자신도 모르게 강가로 들어가 두 손으로 강물을 훔쳐 얼굴에 뿌렸다. 그때 강 건너 안개 숲에서 여인이 나타났다. 라다굽따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면서 다시 보았다. 그러자 여인은 안개 숲 너머로 사라져버렸다. 라다굽따는 환영을 본 것인가 하고 의아해했다. 마치 꿈속에서 여인을 만났던 것처럼 허망했다. 라다굽따는 강물에 어른거리는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다. 햇살이 반사되어 눈을 부시게 했다. 라다굽따는 중얼거렸다.

'자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여인이 나타난 것일까?'

강가 모래밭으로 나온 라다굽따는 햇볕에 몸을 말렸다. 몸이 말라가는 동안 번쩍하는 빛처럼 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대왕님이 새 왕비를 만나면 관심이 바뀔까? 더구나 대왕님에게는 왕자가 한 명뿐이 아닌가?'

라다굽따는 자신의 친족 중에서 왕비가 될 만한 미모의 여인들을 헤아려 보았다. 브라흐민 출신의 젊은 여인이면 더 바랄 게 없었다.

'그래, 내가 살던 마을에 아리따운 아가씨가 있지. 청년들이 구애하고 청혼했지만 그때마다 콧방귀를 뀌었던 아가씨 띠쉬아락시따가 있지.'

라다굽따는 시바신에게 기도한 뒤 이상하게 기운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라다굽따는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가 관복으로 바꿔 입고서 정궁으로 향했다. 정궁 집무실에 들어서자 아쇼까왕이 반색을 하며 맞았다.

"수상이시여, 어디에서 오는 길이오?"

"참으로 오랜 만에 강가강에 나가 기도를 했습니다."

"신의 응답이 있었소?"

"새벽기도를 하던 중에 대왕님의 새 왕비님 같은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그런 일도 있소?"

아쇼까왕이 뜻밖에 흥미를 보였다. 라다굽따는 사실대로 숨기지 않고 말했다.

"여인은 안개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제가 사는 마을의 어떤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여인을 만나고 싶소."

"대왕이시여, 참으로 지혜로우십니다."

"어째서 내가 지혜롭다는 것이오?"

"대왕님께서는 단 한 분의 왕자님만 계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대왕들은 수십 명의 왕자들을 두었습니다. 왕자들은 왕의 튼튼한 울타리이기 때문입니다."

"수상의 말이 맞소. 나는 꾸날라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오. 하지만 꾸날라는 정치를 싫어하는 것 같소. 그러니 나에게는 또 다른 왕자가 필요한 것이오."

그때 꾸날라가 공후를 들고 왔다. 아쇼까왕은 기분이 좋은지 꾸날라에게 공후 연주를 시켰다.

"꾸날라, 수상을 위해 공후를 연주해 주거라."

"예, 대왕님."

꾸날라가 공후를 가슴에 껴안고 연주를 시작했다. 그런데 꾸날라의 공후 연주 소리는 그날

따라 구슬프게 들렸다. 젊은 여인이 흐느끼는 듯한 소리를 냈다가 바람이 숲을 스쳐가는 스산한 소리를 냈다. 공후 연주가 끝나자, 갑자기 아쇼까왕이 꾸날라의 나이를 물었다.

"꾸날라. 네 나이가 몇이더냐?"

"올해 열일곱 살입니다."

"내가 탁실라로 반란을 진압하러 갔던 나이구나. 늘 어리게만 보았는데 적은 나이가 아니구나."

라다굽따는 자신의 의도대로 아쇼까왕이 움직여주자 의기양양해했다. 두 손을 크게 휘두르며 정궁 집무실을 나왔다. 꾸날라가 라다굽따를 뒤따라와 물었다.

"수상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왕자님, 대왕님께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기도 끝에 찾았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새 왕비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대왕님께서 허락하시던가요?"

"새 왕비님이 될 여인을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꾸날라가 잠시 침묵하더니 혼잣말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르마 할머니께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너그러워진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대왕님께서는 자비를 되찾을 것입니다."

꾸날라가 자신도 동조한다는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러다가 잠시 후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자신을 키워준 아상디밋따는 어떻게 될까 하는 회의가 솟구쳐 새 왕비를 맞아들인다는 것에 잠시 심사가 복잡해졌다. 그러나 꾸날라는 라다굽따를 믿었다. 다르마 대비와 아상디밋따, 그리고 꾸날라 자신이 원하는 것은 아쇼까왕이 예전처럼 차가운 판단과 따뜻한 마음을 되찾는 것이었다.



며칠 후.

라다굽따는 갓 스무 살이 된 띠쉬아락시따를 데리고 정궁 다실로 갔다. 아쇼까왕이 먼저 기다리고 있다가 띠쉬아락시따를 맞았다. 아쇼까왕은 띠쉬아락시따가 마음에 드는지 호의를 보였다.

"나는 그대를 소개하겠다는 수상의 제의를 허락했소."

"대왕이시여, 저 띠쉬아락시따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꿈이 아니오. 내 앞에 있는 띠쉬아락시따는 젊고 아름답소."

그러자 띠쉬아락시따가 가는 허리를 비틀면서 황홀해했다. 라다굽따는 아쇼까왕의 표정을 보고는 안도했다. 그런데 젊은 띠쉬아락시따는 겁이 없었다. 아쇼까왕이 아름답다고 칭찬하자 라다굽따에게 감사하다는 듯 큰 눈을 찡긋했다. 아쇼까왕은 친위대장을 불러 즉시 지시했다.

"대장, 아상디밋따의 별궁에 살도록 조치하시오."

"아상디밋다 왕비님께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다르마 대비님 별궁으로 가면 되지 않겠소? 아마도 다르마 대비님이 좋아하실 것이오. 아상디밋따를 늘 딸처럼 여기셨으니까."

"수상이시여, 내 마음을 알아주어 고맙소. 나를 기쁘게 하는 신하는 수상뿐이오."

그러나 아쇼까왕의 태도는 이틀 만에 돌변했다. 젊은 띠쉬아락시따가 잔혹한 아쇼까왕의 행동을 보고 혼절할 정도로 바뀌었다. 아쇼까왕이 우두머리 궁녀를 길잡이 삼아 산책을 나갔다가 벌어진 큰 사건이었다. 우두머리 궁녀는 평소에 아쇼까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애를 썼지만 무시를 당하기만 했다. 궁중정원 언덕에 올라 붉은 꽃을 본 아쇼까왕이 우두머리 궁녀에게 물었다.

"붉은 꽃이 핀 저 나무 이름이 무엇인가?"

"아쇼까나무입니다."

"내 이름과 같은 나무가 있다니 기쁘구나. 산책할 때마다 나는 이 나무를 보러 올 것이다."

우두머리 궁녀는 오전산책이 끝난 뒤 궁녀들을 데리고 가서 붉은 꽃과 잎들을 모두 따 없애버렸다. 그런데 아쇼까왕은 오후산책 때 왕비가 된 띠쉬아락시따에게도 아쇼까나무의 붉은 꽃을 보여주고 싶다며 우두머리 궁녀에게 길잡이를 시켰다. 우두머리 궁녀는 사색이 되어 그곳으로 걸어갔다. 아니나 다를까, 아쇼까왕이 불 같이 화를 냈다. 붉은 꽃과 잎들이 모두 없어져 버린 채 나뭇가지만 앙상했기 때문이었다.

"오전까지만 해도 꽃과 잎들이 아름다웠는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죽을죄를 졌으니 죽여주십시오."

아쇼까왕은 용서하지 않았다. 친위대장을 불러 궁녀들을 여러 개의 대나무 상자 속에 넣은 뒤 즉시 불에 태워죽이라고 명했다. 잠시 후 궁녀들이 대나무 상자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죽어갔다. 이를 본 띠쉬아락시따는 그 자리에서 비틀거리다가 도망치듯 그곳을 벗어났다. 그런 뒤 그녀는 시녀의 도움을 받아 왕비별궁으로 겨우 돌아올 수 있었다.

그날 밤.

아쇼까왕은 띠쉬아락시따를 위로하기 위해 꾸날라를 데리고 별궁으로 찾아갔다. 띠쉬아락시따는 아쇼까왕을 보자마자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 궁녀들이 불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현장에서 허락 없이 이탈했기 때문에 질책하러 온 줄 알고는 그랬다. 그러나 아쇼까왕은 겁에 질린 띠쉬아락시따를 달래려고 왔을 뿐이었다. 띠쉬아락시따는 꾸날라가 뒤따라온 것을 알고는 조금은 안심했다. 꾸날라가 있으니 아쇼까왕이 자신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 같아서였다.

"놀라지 마시오. 꾸날라의 연주를 들으면 마음이 안정이 될 것이오."

"대왕님 곁에 끝까지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오. 신하들이 새 왕비 띠쉬아락시따를 주시하고 있소."

"조심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나무에게 궁녀들이 질투하다니 한심하오."

마음이 금세 안정된 띠쉬아락시따가 하소연하듯 말했다.

"대왕이시여, 여자들의 마음은 그러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나무를 해칠 수 있다는 말이오?"

"나무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귀한 사랑이란 그런 것이 아니오. 그것은 비천한 시기심 같은 것이오."

"대왕이시여, 저도 그럴지 모릅니다. 대왕님께서 저를 사랑하지 않고 나무를 더 가까이 하신다면 저도 모르게 그럴지 모릅니다."

"허허허. 띠쉬아락시따는 나를 웃게 만드는 재주가 있소. 꾸날라야, 공후를 연주하거라."

"예, 대왕님."

꾸날라가 바로 공후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공후를 연주하는 동안 꾸날라는 가슴에 안은 공후만 쳐다보면서 연주했다. 꾸날라의 손가락이 춤을 추듯 줄을 튕겼다. 띠쉬아락시따는 꾸날라의 공후 연주보다는 꾸날라의 눈에 매력을 느꼈다. 아쇼까왕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어버렸을 정도였다. 아쇼까의 눈은 칼날처럼 무서운 데 비해 꾸날라의 눈은 호수처럼 잔잔하고 평화로웠다. 띠쉬아락시따는 꾸날라의 눈에 반해버렸다. 아쇼까왕이 잠깐 졸고 있는 사이에 띠쉬아락시따는 꾸날라의 얼굴을 훔쳐보기도 했다. 그러나 꾸날라는 띠쉬아락시따의 그런 마음을 눈치 채지 못했다. 꾸날라는 고개를 숙인 채 공후 연주만 하고 있을 뿐이었다.〈계속〉

개산 1070여년, 이주중건 500년 기념 대법회

"화계사, 천년의 뜰을 거닐다"

수행중심 교육도량, 세계일화 국제포교의 본찰 화계사는 고려 초에 탄문대사가 창건하고 조선 중종 때인 1522년 신월선사가 현재의 자리로 옮겨 중창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화계사에서는 개산 1070여년 이주중건 500주년을 맞아 대덕큰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산사음악회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합니다.
화계사에 오셔서 코로나 팬데믹에 지친 심신을 치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 자	불공 (10시)	법 문	행 사	기 타
5.26 (목)	상단권공	송원설정 조실스님	다례재	
5.27 (금)		신원성광 회주스님	학인스님 발표회 (해인사, 통도사)	
5.28 (토)		수암 주지스님	괘불재	음악회 (19시)
5.29 (일)		대봉도문 무상사 조실스님	강연회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5.30 (월)		벽산원행 총무원장스님	시상 및 장학금	

※ 행사기간중 매일 공양, 전통차 시음, 특별선물 증정
〈행사기간중 경내에서 불화 및 '화계사 추억의 사진전' 도 마련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화계사길 117(수유동) 전화 02)902-2663 팩스 02)990-1885 www.hwagyesa.org